평화를 기원하고 희망을 노래하다

제주4·3, 여수순천 10·19사건 5·18 42주년 24일 특별음악회

우크라 피난민·고려인 동포돕기 26일 'SAVE & HUG 자선음악회'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장면 〈광주일보 자료 사진〉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특별음악회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고려인 동포를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음악회는 각각 '다시, 봄…그대와 희망을 꿈꾸며', 'SAVE & HUG 자선음악회'를 주제로 상처의 치유와 평화 기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제주4·3, 여수순천10·19사건, 광주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특별음악회가 2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과 제주4·3 그리고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제주, 여수, 광주 세 지역을 순회하며 아픈 역사 치유와 연대를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에서는 영화 '박하사탕'을 원작으로 재창작된 이건용 작곡의 5·18창작오페라 '박하사탕'의 '나 돌아갈래', '무얼하나', '우린 여기 있어요'를 선보인다. 또한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을 토대로 제작된 최정훈 작곡의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의 '고향', '돌레떡 지름떡'이 펼쳐진다. 아울러 여수·순천10·19사건을 재조명한 최정훈 작곡의 창작오페라 '1948침묵'의 '살아서 죽은 자나 죽어서 산 자나',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리'가 울려 퍼진다.

이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편곡한 '5월 광주'(박영란 작곡)로 마무리된다.

테너 윤병길

공연에는 예술감독 강혜명(소프라노), 지휘 정인혁(아르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동수정, 테너 윤병길, 메조소프라노 김하늘, 소프라노 윤한나, 바리톤 이중현, 테너 김신규, 강온유·이강우 어린이 등이 출연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좌석배정. 문의 062-670-7494.

오는 26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이는 'SAVE & HUG 자선음악회'는 우크라이나 피난민과 고려인 동포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문화재단과 굿네이버스 호남본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무등전착(주)이 후원한다.

박광신 아니운서 사회로 빛고을페스티벌앙상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테너 강무림, 소프라노 박수연, 뮤지컬배우 소리엘(장혁재), 피아노 윤상아, 김자영이 참여한다. 샌드아티스트 주홍은 평화를 기원하는 샌드아트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선보인다.

이날 모금된 시민들의 성금과 기탁금은 전액 동포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문의 062-670-794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80년 5월 도청 지하실 투쟁의 현장 다뤄

5·18 추모 연극 '애꾸눈 광대' 24~26일 광주 아트홀

'애꾸눈 광대-어느 봄날의 약속' 공연 모습.

지난 2010년 초연 이후 꾸준히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5·18민중항쟁 추모 연극 '애꾸눈 광대'가 5·18주간을 맞아 무대에 오른다.

나라사랑 예술단은 오는 24~26일 오후 7시30분 광주 아트홀(광주시 동구 중앙로 150-11)에서 '애꾸눈 광대_어느 봄날의 약속'를 선보인다.

'애꾸눈광대'는 80년 5월 투쟁의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민주투사가 된 5·18부상자 동지회 초대 회장 이지현(예명 이세상)의 이야기에 예술적 요소를 가미시킨 연극이다.

작품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에서 독재정권의 종식을 알리는 총성으로 시작해 1980년 5월 광주에 들어온 공수부대와 옛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공연은 그동안 금기시 되던 도청 지하실 문제를 다룬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등학생 시민군과 프락치로 몰린 종교인 등 시민군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투쟁의 현장에서 겪게되는 갈등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희망을 담아냈다.

정이형·김안순·남궁준영·윤석·임현수·함승우·김정규·이반야 등이 출연하며 '애꾸눈 광대'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있는 이지현의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다. 무료 공연으로 사전 예약 후 입장 가능하다. 문의 062-227-7440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67회 호남예술제 성악 입상자

〈심사위원〉
김미옥(광주문화재단 이사)
김선옥(전북대 명예교수)
김철웅(목포대 교수)
박형하(광신대 명예교수)
홍승연(광주교육대 교수)

◇ 중창
▲ 금상
2 이지범 외 13명(살레시오초)
3 최국연 외 18명(광주송원초)
▲ 은상
1 강주원 외 12명(광주삼육초)

◇ 초등부 3,4학년
▲ 최고상
27 천세현(광주송원초3)
▲ 금상
18 유리아(광주송원초4)
26 조은유(살레시오초4)
33 이주아(살레시오초4)
34 고재은(광주교대광주부설초4)
48 김화율(살레시오초4)
49 김승리(광주교대목포부설초4)
▲ 은상
8 조은지(수완초3)
15 박연우(광주송원초3)
17 김민(대자초4)
19 문수영(광주삼육초4)
20 김지후(광주송원초3)
23 김민교(수완초3)
29 박예나(장덕초3)
41 여정현(살레시오초4)
▲ 동상
4 정민서(광주송원초3)
9 정수아(불로초3)
21 오세은(수완초4)
24 이영윤(광주송원초4)
28 박나현(한울초3)
40 김설아(불로초3)
44 형지원(불로초4)
52 김하준(광주삼육초4)

◇ 고등부 1,2학년
▲ 금상
15 정승민(문성고2)
▲ 은상
4 정가현(광주예술고2)
6 이은교(상일여자고2)
10 고영우(전남예술고1)
13 박지현(광주예술고1)
14 손재이(대전예술고2)
▲ 동상
5 김명지(송원여자고2)
9 박주은(광주예술고2)
11 박시우(광주예술고2)
12 유하영(전남예술고2)

◇ 고등부 3학년
▲ 최고상
11 박소현(한국창의예술고3)
▲ 금상
2 이예원(전남예술고3)
6 김보명(광주예술고3)
7 허신우(전남예술고3)
▲ 은상
9 김한슬(순창고3)
12 박주하(광주예술고3)
18 주아린(한국창의예술고3)
▲ 동상
4 조사랑(전남예술고3)
14 김연우(전남예술고3)
15 오가인(유일여자고3)
16 김나은(전남예술고3)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호남학콜로키움, '마한관련 한국 문헌 기록' 발표

24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호남학콜로키움'이 오는 24일 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올해 첫 문을 연다.

호남학콜로키움은 '호남학'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비롯해 광주문화재단, 마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는 마한과 의병이라는 사고의 장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박중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관이 발표자로 나서 '마한 관련 한국의 문헌 기록'을 주제로 발표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마한 기사를 통해 마한사를 이해하고 마한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자리로 마한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계표 전남도 문화재위원을 좌장으로 토론자는 전남대 박물관 강은주 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김경주 부원장,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김남중 학술연구교수,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임영진 마한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호남학콜로키움은 지난 2021년부터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수행한 과업들을 중심으로 호남학을 둘러싼 담론을 함께 풀어보며 개선의 길을 모색했다. 올해도 총 8회에 걸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를 토대로 호남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나아가 대중과 호남학을 공유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전문가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재활용 공예학교' 운영

융합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재활용 공예학교'가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과 공하나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자원을 재활용한 공예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4일 첫 수업이 진행된 '새활용 공예학교' 1기는 '나하공'(나만의 하나뿐인 공간· 광주시 남구 봉선동 무등파크3차아파트 상가동 2층)에서 10회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천 가능한 새활용 공예 프로그램을 접목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폐가죽을 활용한 마우스패드 만들기, 빈 음료캔을 활용한 감성 무드등 만들기 등이다.

한편 공하나협동조합은 지역재생 등을 위해 2018년도에 설립된 단체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폐가죽 업사이클링 공예, 맞춤형 가죽제품 제작을 통해 업사이클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에 관심 있는 만 10세~15세 자녀를 포함한 가족 또는 세대가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수시 모집(10가족·20명)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70-7617-1190, 010-7273-664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